



憂慮되는 世界食糧波動

崔 相 俊

〈韓國經濟研究所〉

밀생산 30% 줄어들 듯

酷暑·가뭄·食水難이 「유럽」新聞들의 主要記事거리로 취급되면서 石油波動과 같은 「76년」의 食糧波動이 예고되고 있다. 「유럽」각국의 觀望대가 1백년 이래의 가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가뭄의 現場은 더욱 심각하다.

「프랑스」의 곡창인 「오른」 계곡일대는 例年 같으면 지금쯤 푸르른 들판이어야 할데에 황토길처럼 먼지가 일고 있다.

英國 「웨일즈」지방의 草原지대는 갈색으로 둔갑되고 있다. 「유럽」 각 도시 정육점에선 고기값이 폭락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료마저 없어 가축업자들이 마구 헐값에 방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디칸」당국이 祈雨禁까지 지냈어도 쾌청한 유럽의 하늘에선 불볕만이 내려쬐고 있다.

英國의 氣象廳은 2백 49년전부터 강우량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4개월간이 가장 비가 적었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동남부의 곡창지대는 급년들어 현재까지의 강우량은 1백 27mm.

75년 1월 한달간의 이지방 강우량은 1백 52mm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각국은 대체로 이같은 異常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농산물 관계자들은 EEC 9개국 농작물은 현재의 가뭄으로 10~20%감소,

1억톤미달의 생산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6월말까지의 가뭄에 따른 예상이고 현재의 高溫·가뭄현상이 지속될 경우 감소량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가뭄은 그 자체가 곡물·채소를 메달라 죽게할 뿐 아니라 해충의 번식과 이에 따른 피해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EC 9國서 10~20% 減收 예상

「유럽」의 가뭄 현상이 3개월째로 장기화하자 「프랑스」 「크리스찬·보네」 農相은 EEC農相회의를 소집, 食糧 부족에 대한 대책 검토를 호소했는데 이 회의는 금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뭄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지역은 EEC의 곡창인 「프랑스」.

「프랑스」의 밀생산은 작년에 1천 4백 20만톤이었다. 이것이 올해는 30%가 줄어 9백만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요한 밀생산지는 「브레타뉴」등을 비롯한

北西部지방인데 이 지방의 가뭄이 특히 우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의 이러한 가뭄홍작이 올해 「식량 波動」을 야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국제 原資材 가격의 指標는 「로이터」指數로 8일 발표된 지수는 1586.8 (1931년 9월=100 기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석유파동이 절정을 이루었던 74년 2월 26일의 것보다 무려 1백을 더 상회한 대기록. 이러한 원자재 값의 상승 이유는 국제 경기 회복과 가뭄에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銅·朱錫·銀 등의 상승이 있는데 이어 가뭄으로 밀·옥수수·콩·설탕·면화등 농작물 상승이 뒤따랐다.

톤당 1백 20달러이던 밀은 최근 1백 41달러, 설탕은 「런던」시장에서 톤당 1백 92파운드(지난주)로 뛰었다.

「유럽」곡물의 홍작으로서 세계적 인 식품 파동은 일지 않는다.

문제는 소련과 美國의 수확량 여하에 달려 있다.

소련의 홍작은 항상 세계적 인 밀波動 (72년 例)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직 소련당국의 추계 발표는 없다.

그러나 현재 소련 및 東歐 역시 가뭄 현상이 있고 보면 올해 소련의 밀수확량도 좋은 기대는 할 수 없다.

문제는 美國의 「선·벨트」에 있다.

美國의 곡창 남부지방엔 아직 우려할만한 가뭄 현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토양 조사는 水分함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適期の 강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듯 지난주 「시카고」곡물시장의 움직임은 별반응이 없었다.

美國 농산물 당국은 올해 곡물생산이 전년 도보다 7% 정도 증가할 것을 낙관하고 있는

데 문제는 현재의 가뭄이 어느 정도, 또 어느 지역 (美國)까지 확대되느냐에 달려 있겠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이상기상현상의 파급 영향은 農業 畜産業은 물론 주요기간 산업의 생산활동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고 穀物생산국의 식량무기화, 비축경쟁화, 수요증대등으로 식량확보의 중요성이 점증될 것을 감안하여 우리는 비록 당장 제 2의 식량위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有備無患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비, 필수자원인 농산물의 정확한 장기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장기수준 비축운용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비축자금과 보관기술의 개발 및 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73년 자원파동시와 마찬가지로 식량 파동은 곡물등 1차산물은 물론 工產品에까지 波及連繫效果를 미치게 되므로 주요원자재에 대한 비축수준을 재고시켜 자원파동에 대비하기 위해 政府調達基金에 의한 비축확대 및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사전 곡물확보가 바람직하다.

세계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原資材 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물량조기확보를 기하고 자원파동에 대비하여 先物去來制度의 확대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신속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시장조사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탄력성있는 정책수행에 이루어져야겠다.

小麥 옥수수 大豆등 수입이 불가피한 곡물에 대하여는 공급원의 다변화(호주 南美등)의 產地農場 개발과 농업 이민과의 연계등 現地 開發輸入 및 장기도입 계약등의 안정적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한다.